

『대형유통업체 ⇔ 성북구청』
“쓰레기 절반 줄이기” 정착을 위한 협약서

대형유통업체와 성북구청은 “쓰레기 절반 줄이기” 구현의 일환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량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쓰레기 절반 줄이기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형유통업체(현대백화점 미아점, 이마트 미아점, 하월곡점, 홈플러스 월곡점으로 이하 “대형유통업체” 라 한다)와 성북구의 업무 및 사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고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획수립) 대형유통업체와 성북구는 각각 실천 가능한 “쓰레기 절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조(실천과제)

대형유통업체와 성북구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소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일회용품 사용 억제, 기관 구성원의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2. 불필요한 포장 및 혼합재질의 포장 등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줄여 나가도록 협력한다.
3. 재활용 및 재사용 활동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보전에 더없이 중요한 활동임을 인식하고, 기관 구성원의 재활용 실천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4. 사업장에서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철저히 분리하고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억제한다.

제4조(지원) 성북구는 대형유통업체의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제5조(이행) 대형유통업체와 성북구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하여 상호간 적극 협력하며, 이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함에 발생하는 이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5년 7월 2일

 **성북구청**
구청장 **김 영 배**

현대백화점 미아점
지점장 **이 현 상**

이마트 미아점
지점장 **박 태 영**

홈플러스 월곡점
지점장 **나 명 희**

이마트 하월곡점
지점장 **주 경 현**